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621.5	20.3	134,500	0.4	0.0	-8.5	33.8	93.7	44.9	0.7	0.6	0.7	1.4
현대로보티스	7,052.1	21.6	433,000	-1.4	12.9	-6.1	13.6	5.8	4.9	0.8	0.7	14.1	14.7
현대알렉스트릭	1,173.7	8.6	115,000	-0.4	0.0	-5.7	0.9	10.9	9.5	1.0	0.9	9.3	9.7
현대건설기계	1,871.6	10.3	189,500	2.4	8.6	-0.1	12.1	12.0	8.9	1.3	1.2	11.7	13.9
삼성중공업	3,377.4	18.5	8,660	0.1	20.9	-24.0	18.1	54.6	27.1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1,914.5	5.2	17,950	-1.1	9.1	N/A	29.1	10.1	15.5	0.5	0.5	4.9	3.3
현대미포조선	2,030.0	13.4	101,500	-1.9	7.6	3.6	29.0	21.9	15.8	0.8	0.7	3.6	4.8
한진중공업	370.1	5.6	3,490	1.0	5.0	-10.7	5.4	70.2	17.5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349.9	34.7	54,800	1.1	2.8	3.0	0.7	9.7	94	1.3	1.2	14.6	13.3
두산밥캣	3,588.9	27.6	35,800	1.7	4.1	-4.0	0.0	13.1	12.4	1.0	1.0	7.4	7.6
현대로템	1,449.3	26.6	17,050	1.5	-10.5	-3.4	-9.1	22.0	15.0	1.0	0.9	4.5	6.3
하이록코리아	341.7	47.7	25,100	1.8	13.1	16.7	11.6	11.4	104	1.0	0.9	8.8	9.0
성광밴드	318.9	15.3	11,150	0.0	12.8	24.7	11.7	985.6	40.0	0.7	0.7	0.1	1.8
태광	371.0	16.8	14,000	1.4	25.5	49.2	16.2	83.6	40.8	0.9	0.9	1.0	2.1
두산중공업	1,660.8	9.7	15,600	-2.5	-1.0	-15.9	1.6	10.5	83	0.5	0.5	4.7	6.0
두산인프라코어	2,236.0	13.1	10,750	0.5	22.9	14.9	23.7	9.7	89	1.0	0.9	10.7	10.1
두산엔진	286.3	3.4	4,120	3.6	2.5	8.6	11.8	57.1	36.8	0.5	0.5	0.9	1.4
한국항공우주산업	5,195.4	18.1	53,300	-1.5	15.0	N/A	12.3	30.9	23.5	3.6	3.3	12.1	14.3
한화테크윈	1,772.6	17.1	33,700	1.7	-5.6	-1.0	-5.2	17.9	13.8	0.7	0.7	4.1	5.1
LIG넥스원	1,174.8	11.3	53,400	0.6	-7.0	-29.6	-10.7	15.7	12.3	1.7	1.5	11.1	13.0
태웅	432.2	2.1	21,600	1.4	14.9	30.9	11.6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171.6	3.9	6,360	0.0	30.1	324	25.9	-265.0	37.6	1.8	1.8	-0.7	5.0
한국기본	280.9	15.4	6,390	0.9	19.0	7.2	19.2	N/A	N/A	N/A	N/A	N/A	N/A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DSD boosts HMD orders to \$160m**

DSD Shipping은 현대미포조선에 MR탱커 4+1척 계약 중 옵션 1척을 행사했다고 알려짐. 각 선박은 3,200만달러로, 총 계약규모는 1.6억달러로 알려짐. 모든 선박은 2019~20년 인도될 예정임. 정확한 가격과 추가 옵션 확보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매력적인 시기에 진입했다고 언급함. (TradeWinds)

**Tianjin Xingang becomes latest shipbuilder to enter VLOC sector**

중국 Tianjin Xingang 조선소는 브라질 Vale와 용선계약을 맺은 China Ore Shipping에서 발주한 32.5만DWT급 VLOC 4척을 건조할 예정임. VLOC는 7,500만달러로 예상되며, IMO Tier III에 2020년 인도 예정임. 또 한국의 SK해운도 펜오션을 따라 중국에서 VLOC를 주문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VLGC sector faces 2018 'balancing point' for next year**

최근 VLGC 신조선 발주가 증가하면서 LPG 시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LPG선의 용선료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자산가치를 고려하면 BEP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짐. 그러나 미국 세일기사스로 LPG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한중일, 인도 등 소비가 증가하면서 톤-마일도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Cyprus to launch FSRU tender for 2020 start-up**

키프로스는 LNG수입계획의 일환으로 수개월 내 FSRU를 도입할 계획임. 키프로스의 LNG 수입목표 시점은 2020년으로, FSRU 신조선을 발주하기엔 충분해 어려움이 있음. 프로젝트 구성의 정확한 부분은 총 비용 4.16억달러 중 최대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 EU의 보조금에 대한 결정이 좌우할 예정임. (TradeWinds)

**Kmarin affiliate takes steps to join Vale project with 10 VLOCs**

국제선박투자운용(KMARIN)은 브라질 Vale와 장기운송계약(COA)를 체결해 32.5만DWT급 VLOC 10척 발주를 계획한다고 알려짐. 중국 조선소 3곳에 8+2척을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짐. 그러나 관계자는 연구 목적일 뿐, Vale와 계약에 대해 부인함. 조선소는 Yangtizijiang과 Qingdao Beihai로 언급됨. (TradeWinds)

**European ports expect, encourage growth of LNG**

유럽 최대 규모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프랑스 덩케르크의 항만은 LNG 터미널을 준비 중이며, IMO 환경규제에 따라 LNG 성장을 기대함. 두 항만은 해운연료로서 LNG 전환을 장려하고, 원활한 빙커링을 가능하도록 법률 및 규정을 개선 중임. 특히 로테르담 항에서는 LNG벙커선이 가능됨. (LNG World Shipping)

**Sulphur Cap 2020 연기될 것인가?**

한국선관 관계자에 따르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적합한 장치를 많은 선박에 탑재하기 어려워 자연됐으나 황산화물 규제는 연기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 황산화물 규제는 스크러버가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 않고, 스크러버 설치를 못해도 저유황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MO가 연기하지 않을 전망임. (선박뉴스)

**글로벌 '퀸'선사 대약대**

Alphaliner에 따르면 글로벌 상위 15개 컨테이너선사들의 2017년 운항 선복량이 전년대비 12.6% 증가함. 특히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에서 상위 15개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78.5%에서 85.1%로 증가함. 2017년 상위 15개사의 선복량은 1,630만TEU이나, 2018년 초 1,830만TEU로 증가할 전망임. (선박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1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